20대 남성의 의류 치수 체계 개발

Development of Appeal Sizing System of Males in Their Twenties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석 혜 정
교수 김 인 숙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hee Univ.
Lecturer : Seok, Hye Jung
Professor : Kim, In Suk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body types of males in their twenties, and to provide information on body types of males by classifying them into group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ways that can help improve the fit and coverage rate of ready-to-wear clothes by developing an apparel sizing system according to body types. 297 male subjects in their twen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54 anthropometric and 35 photographic measurements were taken from each subject.

After combining the body types of the front and the side into a whole body, we selected typical body types out of the combinations. It is shown that 84.64% of males in their twenties belong to the HI type, H☽ type, X☽ type, XI type, YI type, and HS type. To develop a new size system of clothes, the distribution of sizes was determined by using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basic parts of each body type. Then, the most optimal sizes were selected separately for each body type to maximize the coverage rate.

주제어(Key Words): 전신 체형(whole body), 의류 치수 체계(apparel sizing system), 신체 치수(body size)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 의복구성을 위한 체격조사는 1887년 일본인 小池에 의한 것이 최초였다. 그 후 1947년 김인달, 장신요, 나세진 등의 생체계측학적,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있었으며(이순원, 1971) 1950년에는 국군 사병 또는 대학 입학 지원자 및 조종사, 정비

사를 대상으로 계측을 실시하여 군인들의 체격 기준을 제정하였고, 1960년대에는 여자 대학 입학 지원자를 계측하여 6·25사변전 또는 해방전의 체격과 비교 분석하였다(인터패션플래닝, 1995).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사는 1979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공업진흥청 주관으로 18,013명(6세에서 50세)에 대한 117개 부위를 측정하였다. 이어 1986년 제2차 국민 체위 조사, 1992년 제3차 국민 체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만6세에서 50세까지의 남녀 6,600명에 대하여 84개 부위를 측정하였고, 1997년에는 전국 13,062명을 대상(0세에서 70세)으로 120개 부위에 대하여 직접 계측이 시행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KS규격을 만들었는데 제1차 국민 표준 체위 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의류, 신발류, 교가류 등 46개 공산품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였다. 1990년에는 종래의 41개 규격을 인체의 성장 단계 및 옷의 범위를 6가지(드레스셔츠, 남성복, 여성복, 유아복, 모자, 양말)로 대별하여 단순화시켜 각 규격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종래의 규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남성복은 상의와 하의로 분류되었던 치수 규격이 남성복의 치수로 묶어졌다. 남성복의 경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 즉 드롭치 분류에 의한 치수체계가 이루어졌다. 다시 개정된 의류 치수는 드롭치를 사용하지 않고 의복 종류별로 기본 신체 부위와 각 부위의 치수 간격만 정해주고 있을 뿐 범위와 각 기본 부위의 조합에 따른 구체적인 치수 체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이혜영, 1991).

현재 남성복 치수규격 표준은 1999년에 개정한 KS K 0050이고, 남성복의 적용 범위는 유아복 및 정장용 드레스 셔츠를 제외한 청소년복, 아동복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KS K 0050에 의하면 남성복의 규격 범위는 상의류 및 전신용 의류/하의류/셔츠류/내의류, 잠옷류, 수영복류로 세분되어 있고, 옷에 따라 기본 신체 부위 및 표시 순서가 다르다.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남성복의 신체 치수 간격은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의복의 경우는 가슴둘레 2cm, 허리둘레 2cm 엉덩이둘레 3cm, 키 5cm이다. 피트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를 각각 5cm 간격으로 연속하여 분류한다. 상의인 경우 기본부위의 범위는 가슴둘레는 82~

〈표 1〉 의복 종류별 기본 신체 부위(한국산업규격, 1999)

의 류 종 류	기본신체부위		
	1	2	3
상의류 및 전신용 의류			
- 정장용 신사복 상의, 성인용 코트	가슴둘레	허리둘레	신 장
- 청소년	가슴둘레	신 장	
- 아동복	신 장	가슴둘레	
- 기타의 것 중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것	가슴둘레	신 장	
- 기타의 것 중 피트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잠바, 작업복, 운동복 등)	가슴둘레	신 장	
하의류			
- 청소년복, 아동복	허리둘레	신 장	
- 기타의 것 중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것 (신사복 하의 등)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 기타의 것 중 피트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운동복, 작업복등)	허리둘레	신 장	
셔츠류, 편물제 상의류(남방셔츠, T셔츠, 가디간 등)	가슴둘레	신 장	
내의류, 잠옷류, 수영복류			
- 전신용	가슴둘레	신 장	
- 상반신용	가슴둘레		
- 하반신용	엉덩이둘레		

106cm, 허리둘레 67~103cm, 신장 160~180cm이다.

우리 나라의 규격 표준화는 신체 특성 변화와 체형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의류 제품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의류 제조업체의 기성복 치수 규격 설정과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어, 이번 개편안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드롭치(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차이, 6~28cm)를 사용하여 5개의 체형(YY, Y, A, B, BB type)으로 나누어 사이즈를 전개하고 있다.(한국산업규격, 1999)

드롭치를 사용하여 체형을 구분하고 치수를 설정하는 것은 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롭치에 의한 체형 구분은 중요한 부위 즉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일률적인 편차이지 다른 신체 부위의 형태에 대한 정보는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아 체형의 형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치수의 조합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각 부위 치수의 조합으로 100개 이상의 사이즈가 도출된다. 즉 치수체계는 사용자가 임의로 부위별 치수를 조합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융통성이 큰 반면 각 신체 부위의 조합에 의한 정확한 신체 형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체형이나 치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이 미약하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川上梅 외 1, 1980, 川上梅, 1982, 최혜옥, 1990, 유신정, 1990, 김구자, 1991, 유신정, 1991, 박은주, 1993, 이선명, 1993,이선명, 1994, 홍은희, 1996, 박정순 외 3, 1996, 白田裕子 외 1, 1998)에서는 남성복 치수 체계 설정을 위한 체형에 관한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구자(1998)의 연구에서는 28세에서 35세 남성을 드롭을 사용하여 12개의 사이즈 스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형을 각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치수체계를 제시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자는 체형을 형태적으로 분류하여 이것을 토대로 이들 부위별 특정 치수를 조합함으로써 특정 체형과 체형에 따른 치수 조합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체형을 고려한 치수 체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김인숙, 석혜정, 2001; 석혜정, 김인숙, 2002)에 이어 정면유형과 측면유형이 조합된 전신유형의 분류와 전신체형 중 우리 나라 20대 남성의 대표유형을 찾아 유형별 사이즈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20대 남성의 체형을 형태적인 특징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체형간의 차이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나라 20대 남성의 대표적인 체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각 유형별 치수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20대 남성의 정면유형과 측면유형을 조합하여 전신체형을 분류한다.
2. 20대 남성의 대표적인 유형을 선정한다.
3. 20대 남성의 각 유형별 치수체계를 개발한다.

II. 연구 방법

1. 측정 대상 및 측정 항목

본 연구는 20세에서 29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비 조사는 1998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1998년 10월 1일부터 11월 27일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거주하는 남성 297명의 인체를 계측하였다. 그 중 자료가 미비한 2명을 제외한 295명을 계측 자료로 하였다.

인체 측정은 R. Martin의 인체계측법 및 공업진흥청의 KS A 7004의 측정법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인체 측정 용어는 KS A 7003과 인체 측정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에 따랐다. 계측 항목은 높이부위 17항목, 너비부위 9항목, 두께부위 8항목, 둘레부위 7항목, 길이부위 12항목, 몸무게 총 54항목이다. 또한 인체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정면, 측면, 후면을 촬영하였다. 간접측정시 기준선이 필요한데 정면은 목앞점과 발뒤꿈치가 만나는 점을 연결하는 정준선을 그어 설정하였다. 측면의 기준선은 귀구슬점에서 수직으로 내리는 방법(남윤자, 1991)을 선택하였다. 간접 측정은 직접 계측으로 측정이 어려운 앞·뒤두께와 각도 항목을 측정하였다. 간접측정에는 정면 각도 4항목, 측면은 두께 16항목,

〈표 2〉 직접, 간접 계측 항목

직접계측항목	높이 항목	키, 목뒤점높이, 목앞점높이, 어깨높이, 겨드랑이점높이, 등돌출점높이, 윗가슴점높이, 가슴높이, 옆허리높이, 앞허리높이, 뒤허리높이, 배꼽높이, 배높이, 엉덩뼈가시높이, 엉덩이높이, 엉덩이밑높이, 샅높이	간접계측항목	정면	각도 항목	어깨각, 어깨너비각, 배너비각, 엉덩이너비각
	너비 항목	목너비, 목밑너비, 어깨끝점사이너비, 윗가슴너비, 가슴너비, 허리너비, 배너비, 엉덩이너비, 넓적다리돌기사이너비		측면	각도 항목	목뒤점접선각, 등면상부각, 등면하부각, 엉덩이상부각, 배두께후면각, 엉덩이하부각, 목앞점접선각, 가슴상부각, 가슴하부각, 배상부각, 귀구슬점과 목옆점 연결각, 목옆점과 허리중심연결각, 허리중심과 엉덩이중심연결각, 목뒤점과 목앞점연결각, 앞허리와 뒤허리연결각
	두께 항목	목두께, 목밑두께, 윗가슴두께, 가슴두께, 허리두께, 배두께, 엉덩이두께, 엉덩이밑두께				
	둘레 항목	목둘레, 목밑둘레, 윗가슴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둘레 항목	앞중심길이, 앞품, 목옆점-BP-허리둘레, 목옆점-허리둘레, 등길이, 어깨길이, 어깨끝점사이길이, 진동깊이, 뒤품, 어깨중심-어깨뼈아래각점-허리, 목옆점-어깨뼈아래각점-허리, 허리옆선-엉덩이둘레선				목밑앞 · 뒤두께, 등돌출앞 · 뒤두께, 윗가슴앞 · 뒤두께, 가슴앞 · 뒤두께, 허리앞 · 뒤두께, 배앞 · 뒤두께, 엉덩이앞 · 뒤두께, 엉덩이밑앞 · 뒤두께
	기타	몸무게				

각도 15항목이다.

연구 자료는 표집의 편리성을 위해 의도적 표집을 하였으며, 신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고려치 않았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여부를 정규성 검증 통계값, 국민체위조사 보고서와 본 연구 자료의 주요 신체부위 치수 차이를 통해 살펴보았다. 대표 항목의 정규성 검증 통계값을 보면, 왜도는 3항목 모두 양의 값으로 0에 가깝다. 첨도의 경우 키는 -0.33으로 정규 분포보다 좁게 밀집하고 있고, 윗가슴둘레, 몸무게는 음의 값으로 정규분포보다 약간 퍼져 있다. 정규성 유무는 3집단 모두 Z의 값이 각각 1.05, 0.82, 1.22이고 유의확률이 각각 0.22, 0.52, 0.10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있어 정규성임을 알 수 있다.〈표 3〉

신체의 주요 부위에 있어 본 연구와 97년 제3차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는 〈표

〈표 3〉 키, 윗가슴둘레, 몸무게의 정규성 검증 통계값

통계값 항목	키	윗가슴둘레	몸무게
평 균	171.91	94.07	66.80
표준편차	5.44	5.69	8.21
왜 도	0.11	0.34	0.97
첨 도	-0.33	0.29	1.81
Kolmogorov-Smirnov Z	1.05	0.82	1.22
Asymp. Sig. (2-tailed)	0.22	0.52	0.10

〈표 4〉 국민체위조사보고서와 본 연구자료의 주요 신체 치수 차이와 t값 (단위: cm, kg)

구분 \ 항목		키	윗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
1997년국민체위 (20-29세)	평 균	171.26	92.89	75.54	92.19	65.74
	표준편차	5.27	5.39	5.83	4.63	7.69
본 연구 자료 (20-29세)	평 균	171.86	94.02	75.46	92.73	66.73
	표준편차	5.52	5.74	5.71	4.71	8.30
t-value		1.59	2.96**	-0.20	1.67	1.79

** : $p \leq 0.01$

4)에 나타냈다. 키,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윗가슴둘레에서만 유의수준 0.01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 자료가 편의적으로 표집되었으나, 정규성을 이루고 있어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분석 방법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win 9.0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고, 사용된 분석 방법은 분할표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이였다. 전신의 체형을 고찰하기 위해 선행연구(김인숙, 석혜정, 2001, 석혜정, 김인숙, 2002)에서 실시했던 정면체형의 3유형과 측면체형의 3유형을 사용하였다. 특징을 살펴보면 정면 유형은 Y, H, X형으로 Y형은 가슴길이가 길고 어깨가 발달하였으며, 하체의 실루엣은 밋밋하고 짧은 형태이고, H형은 가슴에서 엉덩이까지 돌출이 적고 밋밋한 형태이고, X형은 허리에 비해 가슴, 엉덩이가 크고 엉덩이 길이가 긴 형태로 나타났다. 측면 유형은 I, S, D형으로 I형은 등돌출점에서 엉덩이 밑 부위까지 전후가 모두 비슷하게 배분되어 있는 형태이고, S형은 목부터 등까지는 후면으로 심하게 곡면을 이루고, 배, 엉덩이 부위는 전면으로 돌출한 형태이고, D형은 몸통이 전면으로 돌출하였고, 후면은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로 나타났다.

III. 연구 결과

1. 정면 체형과 측면 체형의 조합

전신의 체형은 선행연구(김인숙, 석혜정, 2001, 석혜정, 김인숙, 2002)에서 분류한 정면 3유형, 측면 3유형에 대하여 분할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면 3유형과 측면 3유형을 조합한 전신 체형 9개에 대한 Pearson χ^2값이 10.51이고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Likelihood ratio χ^2와 Linear-by-Linear Association χ^2검정도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즉 정면 체형과 측면 체형 사이에서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그러나 두 변수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Phi 계수, Cramer's V, Contingency Coefficient가 각각 0.19, 0.13, 0.19로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표 6〉.

〈표 5〉 정·측면 조합시 Chi-Square 값

	Value	df
Pearson Chi-Square	10.51*	4
Likelihood Ratio	11.21*	4
Linear-by-Linear Association	5.42*	1

〈표 6〉 정·측면 관련성 정도 측정

	Value
Phi	0.19*
Cramer's V	0.13*
Contingency Coefficient	0.19*

* $p < 0.05$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아직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20대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유경(1997)의 연구에서는 정면과 측면은 각각의 측면과 정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장혜경(1998)의 연구에서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시켰다.

그러므로 20대 남성 체형에 있어서 정면 또는 측면의 유형이, 다른 측면 또는 정면의 유형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할표 분석의 결과는 〈표 7〉에 나타냈다.

정면 Y형일 경우 측면 I형, S형, D형의 분포가 각각 52.73%, 27.27%, 20.00%로 나타나, 정면이 Y형일 경우 1/2 이상이 측면은 I형이다. 즉 어깨가 발달하고 하체가 짧은 Y형은 측면에서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전후로 골고루 배분되어 있고 전후 돌출이 적어 밋밋한 I형이 많이 나타났다.

정면 H형일 경우 측면 I형, S형, D형의 분포가 각각 45.16%, 15.48%, 39.35%로 나타났다. 윗가슴너

<표 7> 정면 체형과 측면 체형에 의한 전신 체형의 조합

정면 \ 측면	I	S	☽	total
Y	29	15	11	55
	24.22	10.89	19.90	55
	52.73	27.27	20.00	100.00
	22.48	25.86	10.38	18.77
	9.90	5.12	3.75	18.77
H	70	24	61	155
	68.24	30.68	56.08	155
	45.16	15.48	39.35	100.00
	54.26	41.38	57.55	52.90
	23.89	8.19	20.82	52.90
X	30	19	34	83
	36.54	16.43	30.03	83
	36.14	22.89	40.96	100
	23.26	32.76	32.08	28.33
	10.24	6.48	11.60	28.33
total	129	58	106	293
	129	58	106	293
	44.03	19.80	36.1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4.03	19.80	36.18	100.00

** 한 셀 안의 숫자는 차례로 - 실제출현빈도, 기대빈도, 정면 유형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측면 유형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비에 비해 다른 너비 항목이 크고, 돌출이 적어 밋밋한 정면 H형은 측면에 있어서는 돌출이 적은 I형과 앞으로 돌출한 ☽형에 많이 분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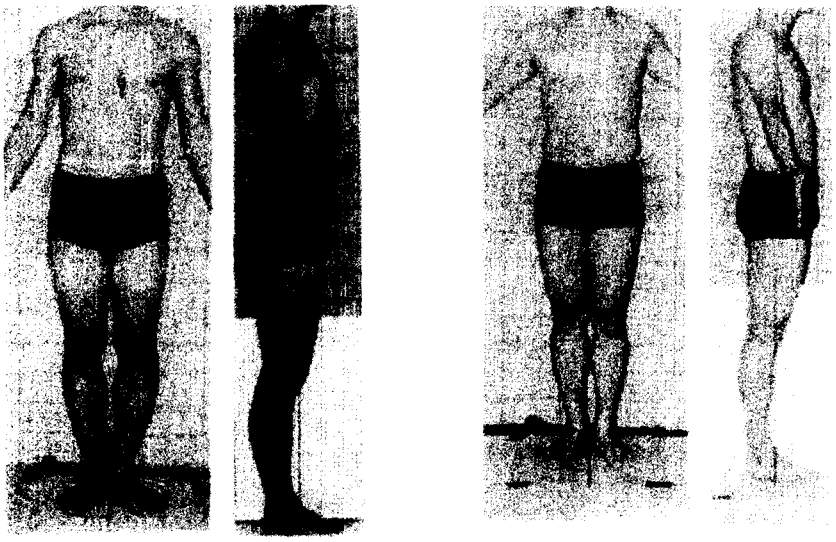
정면 X형일 경우 측면 I형, S형, ☽형의 분포가 각각 36.14%, 22.89%, 40.96%로 측면의 형태는 골고루 분포하였다. 윗가슴너비에 비해 허리너비가 작고 돌출이 많은 정면 X형이 측면에서는 앞으로 돌출한 ☽형으로 많이 나타났다.

측면 I형일 경우 정면 Y형, H형, X형의 분포가 각각 22.48%, 54.46%, 23.26%로, 측면이 밋밋한 경우 정면도 역시 돌출이 적은 H형이 많이 나타났다.

측면 S형일 경우 정면 Y형, H형, X형의 분포가 각각 25.86%, 41.38%, 32.76%로, 측면에서 등과 배가 돌출한 S형은 정면에서 굴곡이 적고 너비가 큰 H형과 가장 많이 결합하였다.

측면 ☽형일 경우 정면 Y형, H형, X형의 분포가 각각 10.38%, 57.55%, 32.08%로 나타나 앞으로 돌출한 ☽형은 정면에서 어깨가 발달한 Y형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굴곡이 없고 너비 항목이 큰 H형으로 많이 결합하였다.

실제빈도와 기대빈도를 비교해 보면 기대빈도보다 실제빈도가 많이 나타난 유형은 YI형, YS형,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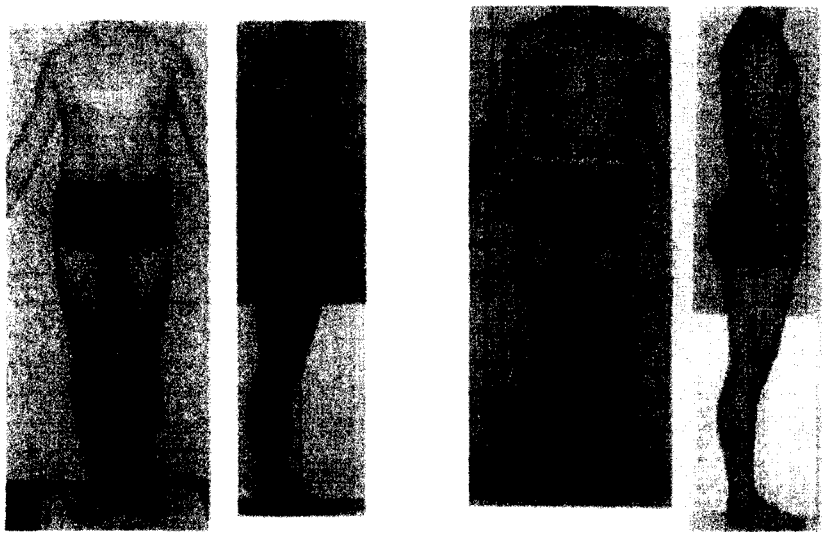


<그림 1> HI형, H☽형

형, XⅡ형이었고, 기대빈도보다 실제빈도가 적게 나타난 유형은 YⅡ형, HS형, XI형이었다.

각각의 출현율을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은 HI형으로 23.89%를 차지하고 있어 20대 남성의 1/4 정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유형은 HⅡ형으로 20.8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10%이상의 출현율 보인 유형은 XⅡ형(11.60%), XI형(10.24%)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우리 나라 20대 남성 체형을 대표하는 전신체형을 선정하였다. 우선



<그림 2> XⅡ형, XI형

<그림 3> YI형, HS형

10% 이상의 출현율을 보인 유형인 HI형, H)형, X)형, XI형과 이 중에서 전혀 속하지 않는 정면 Y형과 측면 S형에 대해서는 각 유형별 출현율을 보아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인 YI형(9.90%),과 HS형(8.19%)을 포함시켰다. 20대 남성의 대표체형으로 HI형, H)형, X)형, XI형, YI형, HS형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은 전체의 84.64%를 차지한다.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HI형은 정·측면 모두 밋밋하고 굴곡이 없는 체형이고, H)형은 정면은 밋밋하지만 측면에서 보면 가슴에서부터 배까지 앞으로 돌출한 형태이다. 이 유형은 중년에서 나타나는 배가 돌출한 비만의 형태와는 달리, 후면부위도 역시 전면으로 쑥 들어간 형태로 자세에 의한 모습으로 보인다. X)형은 정면은 너비가 작고 돌출이 심한 형태를 보이고, 측면은 가슴에서 배까지 전면으로 돌출한 형태이고, XI형은 정면은 돌출이 심하지만 측면은 밋밋한 형태이다. YI형은 정면은 어깨가 넓고 너비 항목이 크지만, 측면은 밋밋한 형태이고, HS형은 정면은 밋밋하지만 측면은 등과 배 부위가 돌출된 형태이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각 대표 체형의 형태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피험자의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2 . 유형별 치수 체계

본 연구 조사대상의 각 유형별 드롭치(윗가슴둘레-허리둘레)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8〉. YI유형은 6~26cm, HI유형은 -6~28cm, HS유형은 10~23cm, H)유형은 12~32cm, XI유형은 14~28cm, X)유형은 12~30cm이다. 각 유형별로 6%이상의 분포를 보이는 구간을 살펴보면, YI유형은 15~26cm, HI유형은 17~24cm, HS유형은 15~23cm, H)유형은 13~21cm, XI유형은 17~21cm, X)유형은 15~23cm이다. 최빈값은 YI유형은 20cm, HI유형은 18cm, 23cm, HS유형은 18cm, 21cm, H)유형은 17cm, XI유형은 19cm, X)유형은 18cm로 각 체형마다 다르다. 이처럼 체형에 따라 드롭치가 다르기 때문에 치수를 설정할 때에는 각기 다른 치수체계를 가져야만 한다.

치수간격은 각 유형별 평균치를 중심으로 표준편차만큼의 간격으로 치수를 산출하였다.

〈표 8〉 유형별 드롭 분포(%)

유형 / 드롭(cm)	YI (29명)	HI (70명)	HS (24명)	H) (60명)	XI (30명)	X) (34명)	total (248명)
-6		1.4					0.4
4		1.4					0.4
6	3.4						0.4
8		1.4					0.4
9		1.4					0.4
10			4.2				0.4
11		1.4					0.4
12			4.2	1.6		2.9	1.2
13	3.4	2.9	4.2	6.6		2.9	3.6
14		5.7	4.2	1.6	3.3	5.9	3.6
15	6.9	5.7	8.3	4.9	3.3	11.8	6.5
16	3.4	4.3	8.3	11.5	3.3	8.8	6.9
17	6.9	12.9	8.3	[illegible]	6.7	2.9	10.5
18	10.3	[illegible]	[illegible]	9.8	13.3	[illegible]	[illegible]
19	6.9	8.6	4.2	11.5	[illegible]	8.8	9.7
20	[illegible]	8.6		8.2	3	8.8	11.3
21	6.9	5.7	[illegible]	6.6	6.7	8.8	7.7
22	6.9	4.3	12.5	4.9	3.3	2.9	5.2
23	6.9	[illegible]	8.3	3.3	3.3	11.8	7.7
24	10.3	7.1		3.3	3.3		4.4
25	3.4	2.9		1.6			1.6
26	6.9				3.3	2.9	1.6
27				1.6		2.9	0.8
28		1.4		1.6	3.3		1.2
30				3.3		2.9	1.2
32				1.6			0.4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9〉는 6개 체형에 대한 기본 부위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이다. 음영 부분은 치수설정의 편의를 위해 정수로 변환하여 설정한 기준값, 편차, 범위이다.

이를 토대로 각 기본부위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만큼으로 치수를 정해주었다. 예를 들어 YI형인 경우 신장 173을 기준으로 "±표준편차"에 의한 급간으로 치수를 설정하면, 163, 168, 173, 178,

〈표 9〉 유형별 기본 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범위(cm)

유형 / 항목	키				윗가슴둘레				허리둘레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YI형	172.90	5.36	163.50	184.50	93.13	5.06	83.50	106.00	73.59	4.61	68.00	88.50
	173	5	163	183	93	5	83	108	74	5	69	89
HI형	171.84	5.16	161.00	183.50	94.72	6.75	80.00	107.00	76.66	6.31	65.00	97.00
	172	5	162	182	95	7	81	109	77	6	65	95
HS형	171.60	5.68	161.60	183.00	93.86	3.12	87.00	99.00	76.10	4.72	68.00	83.30
	172	6	160	184	94	3	88	100	76	5	66	81
HD형	171.84	5.75	160.00	184.00	95.38	5.15	84.50	106.00	76.52	4.61	68.00	89.50
	172	6	160	184	95	5	85	105	77	5	67	92
XI형	169.17	5.51	159.50	184.60	93.14	6.52	85.60	115.00	73.59	5.92	65.80	92.00
	169	6	157	187	93	7	86	114	74	6	68	92
XD형	172.74	4.92	158.00	183.40	93.76	5.99	83.00	106.00	74.94	5.70	62.20	86.00
	173	5	158	183	94	6	82	106	75	6	63	87

183이 된다. 이때 범위는 치수의 "±표준편차/2" 만큼의 범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키 치수 163은 161.5~165.5cm의 범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각 유형별 평균치, 표준편차, 범위를 사용하여 치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치수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넓은 범위의 치수를 커버하기에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충분히 크지 않아 실제자료만으로 분포도를 작성할 경우 자료의 정규분포성에도 불구하고 결측치가 나타나는 구간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정규분포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서 먼저 난수 40개를 구해 원자료에 곱해 확대시켰다. 자료를 단순히 40배 하는 것은 기존 분포를 그대로 늘리는 방법으로서 그 결과 기존의 결측치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므로 난수표를 이용하여 자료의 무작위적 확대를 꾀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원자료에 10개의 난수표를 곱한 후 그 결과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정규분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측치 부분을 채우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기존의 정규분포를 유지하면서 실제표본에서 크게 어긋나지도 않는 자료를 만들어 치수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표 10〉~〈표 15〉와 같다. 이때 2% 이상의 비율을 보인 구간은 음영으로 처리하였고 치수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YI형은 치수의 개수는 17개이고, 커버율은 53.57%이다. 윗가슴둘레는 88~98, 허리둘레는 69~74, 키는 163~178 사이이다. 가장 커버율이 높은 치수는 93-74-173이였다.

HI형은 치수의 개수는 17개이고, 커버율은 54.90%이다. 윗가슴둘레는 88~102, 허리둘레는 71~83, 키는 162~177 사이이다. 가장 커버율이 높은 치수는 95-77-167이였다.

HS형은 치수의 개수는 22개이고, 커버율은 65.21%이다. 윗가슴둘레는 88~100, 허리둘레는 66~81, 키는 160~178 사이이다. 가장 커버율이 높은 치수는 94-71-178이였다.

HD형은 치수의 개수는 12개이고, 커버율은 46.70%이다. 윗가슴둘레는 85~100, 허리둘레는 67~82, 키는 160~184 사이이다. 가장 커버율이 높은 치수는 95-77-172이였다.

XI형은 치수의 개수는 14개이고, 커버율은 76.34%이다. 윗가슴둘레는 86~100, 허리둘레는 68~80, 키

<표 10> YI형의 size 분포 (%, 괄호안은 빈도)

윗가슴둘레	키	허리둘레					total
		69	74	79	84	89	
83	163	1.34(14)	0.48(5)				1.82(19)
	168	1.54(16)	0.29(3)				1.82(19)
	173	1.54(16)	0.48(5)				2.02(21)
	178	1.06(11)	0.10(1)				1.15(12)
	183	0.29(3)					0.29(3)
88	163	2.40(25)	2.21(23)	0.10(1)			4.70(49)
	168	4.13(43)	3.07(32)	0.19(2)			7.39(77)
	173	3.65(38)	2.69(28)	0.19(2)			6.53(68)
	178	2.30(24)	1.63(17)	0.29(3)		0.10(1)	4.32(45)
	183	0.67(7)	1.34(14)	0.19(2)		0.10(1)	2.30(24)
93	163	2.21(23)	2.50(26)	0.58(6)	0.10(1)		5.37(56)
	168	3.65(38)	4.32(45)	0.48(5)	0.19(2)	0.38(4)	9.02(94)
	173	3.36(35)	4.41(46)	0.77(8)	0.29(3)	0.29(3)	9.12(95)
	178	1.73(18)	3.36(35)	0.86(9)	0.19(2)	0.29(3)	6.43(67)
	183	0.86(9)	1.73(18)	0.58(6)	0.19(2)	0.10(1)	3.45(36)
98	163	0.58(6)	1.15(12)	0.58(6)	0.29(3)		2.59(27)
	168	1.06(11)	3.07(32)	0.96(10)	0.19(2)	0.29(3)	5.57(58)
	173	0.96(10)	3.84(40)	1.25(13)	0.38(4)	0.29(3)	6.72(70)
	178	0.86(9)	2.40(25)	1.54(16)	0.48(5)	0.38(4)	5.66(59)
	183	0.29(3)	0.96(10)	0.29(3)	0.38(4)	0.10(1)	2.02(21)
103	163			0.10(1)	0.19(2)		0.29(3)
	168		0.48(5)	0.67(7)	0.38(4)		1.54(16)
	173	0.19(2)	0.38(4)	0.58(6)	0.48(5)	0.10(1)	1.73(18)
	178	0.19(2)	1.34(14)	0.58(6)	0.38(4)		2.50(26)
	183		0.77(8)	0.96(10)	0.48(5)		2.21(23)
108	163						0.00(0)
	168			0.10(1)	0.19(2)		0.29(3)
	173			0.19(2)	0.10(1)		0.29(3)
	178			0.29(3)	0.48(5)		0.77(8)
	183			0.19(2)	0.10(1)		0.29(3)
total		35.99(375)	43.67(455)	12.48(130)	5.47(57)	2.40(25)	100(1042)

는 157~181 사이이다. 가장 커버율이 높은 치수는 93-74-175이였다.

XD형은 치수의 개수는 18개이고, 커버율은 57.50%이다. 윗가슴둘레는 82~100, 허리둘레는 69~81, 키는 163~183 사이이다. 가장 커버율이 높은 치수는 94-75-173이였다.

<표 11> HI형의 size 분포 (%, 괄호안은 빈도)

윗가슴둘레	키	허리둘레						total
		65	71	77	83	89	95	
81	162	0.12(3)	0.36(9)	0.08(2)				0.56(14)
	167	0.40(10)	0.28(7)	0.28(7)	0.08(2)			1.05(26)
	172	0.32(8)	0.40(10)	0.20(5)	0.04(1)			0.97(24)
	177	0.40(10)	0.24(6)	0.20(5)				0.84(21)
	182	0.16(4)	0.12(3)	0.08(2)				0.36(9)
88	162	0.20(5)	2.73(68)	1.09(27)	0.16(4)			4.18(104)
	167	0.48(12)	4.38(109)	2.41(60)	0.16(4)			7.44(185)
	172	1.09(27)	4.10(102)	2.01(50)	0.16(4)			7.36(183)
	177	1.41(35)	2.85(71)	1.81(45)	0.04(1)			6.11(152)
	182	0.44(11)	1.05(26)	0.97(24)	0.08(2)			2.53(63)
95	162		0.60(15)	2.81(70)	0.72(18)	0.04(1)	0.04(1)	4.22(105)
	167		1.65(41)	4.95(123)	1.53(38)	0.12(3)	0.04(1)	8.28(206)
	172	0.08(2)	2.81(70)	4.91(122)	1.61(40)	0.08(2)		9.49(236)
	177	0.40(10)	2.69(67)	4.62(115)	1.45(36)	0.08(2)	0.16(4)	9.41(234)
	182	0.20(5)	0.76(19)	1.49(37)	0.76(19)			3.22(80)
102	162			1.17(29)	0.76(19)	0.80(20)	0.12(3)	2.85(71)
	167		0.16(4)	2.29(57)	1.85(46)	0.76(19)	0.08(2)	5.15(128)
	172		0.72(18)	3.50(87)	2.17(54)	0.88(22)	0.56(14)	7.84(195)
	177		1.05(26)	2.98(74)	2.69(67)	0.84(21)	0.32(8)	7.88(196)
	182		0.64(16)	1.65(41)	1.13(28)	0.20(5)	0.04(1)	3.66(91)
109	162				0.20(5)			0.20(5)
	167			0.16(4)	0.48(12)	0.16(4)	0.04(1)	0.84(21)
	172			0.24(6)	1.01(25)	0.20(5)	0.16(4)	1.61(40)
	177		0.04(1)	0.56(14)	0.80(20)	0.36(9)	0.16(4)	1.93(48)
	182		0.16(4)	0.40(10)	0.9(24)	0.24(6)	0.24(6)	2.01(50)
total		5.71(142)	27.82(692)	40.85(1016)	18.86(469)	4.78(119)	1.97(49)	100(2487)

연구 결과와 실제 업계의 치수를 비교하기 위해 1999년 9월 현재 신사복 매출이 높은 업체(섬유저널, 1999)중 20대를 주고객으로 하는 업체의 호칭 및 치수 체계를 조사하였다 <표 16>.

각 업체에서 사용하는 치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수는 "97-85-170"와 "100-88-175"로 8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에 비해

〈표 12〉 HS형의 size 분포 (%, 괄호안은 빈도)

윗가슴둘레	키	허리둘레					total
		66	71	76	81	86	
88	160	1.12(10)		1.57(14)			2.68(24)
	166	2.01(18)	0.22(2)	0.78(7)			3.02(27)
	172	1.23(11)	3.36(30)	1.01(9)			5.59(50)
	178						0.00(0)
	184						0.00(0)
91	160		0.22(2)	2.35(21)	1.68(15)		4.25(38)
	166		2.80(25)	2.01(18)	1.79(16)		6.60(59)
	172	1.57(14)	3.69(33)	2.13(19)			7.38(66)
	178		2.35(21)	1.45(13)	0.11(1)		3.91(35)
	184						0.00(0)
94	160		0.45(4)	1.12(10)	1.01(9)	0.22(2)	2.80(25)
	166		1.45(13)	2.01(18)	2.91(26)	1.45(13)	7.83(70)
	172		2.91(26)	4.59(41)	1.01(9)		8.50(76)
	178		5.82(52)	2.01(18)	1.90(17)		9.73(87)
	184		2.24(20)		0.34(3)		2.57(23)
97	160						0.00(0)
	166			1.57(14)	4.14(37)	0.56(5)	6.26(56)
	172		0.11(1)	2.68(24)	2.57(23)	1.34(12)	6.71(60)
	178		0.11(1)	2.68(24)	3.13(28)		5.93(53)
	184		0.56(5)	1.01(9)	3.91(35)		5.48(49)
100	160						0.00(0)
	166				0.11(1)		0.11(1)
	172			1.34(12)	2.91(26)	1.57(14)	5.82(52)
	178			1.45(13)	1.12(10)	0.34(3)	2.91(26)
	184			0.56(5)	0.78(7)	0.56(5)	1.90(17)
total		5.93(53)	26.29(235)	32.33(289)	29.42(263)	6.04(54)	100(894)

〈표 13〉 H형의 size 분포 (%, 괄호안은 빈도)

윗가슴둘레	키	허리둘레						total
		67	72	77	82	87	92	
85	160	1.42(33)	0.43(10)	0.09(2)				1.94(45)
	166	2.46(57)	1.64(38)	0.09(2)				4.18(97)
	172	0.65(15)	0.73(17)					1.38(32)
	178	0.22(5)	0.13(3)	0.26(6)				0.60(14)
	184	0.04(1)	0.09(2)					0.13(3)
90	160	0.43(10)	2.37(55)	1.81(42)				4.61(107)
	166	1.16(27)	6.04(140)	3.49(81)	0.04(1)			10.74(249)
	172	1.03(24)	4.31(100)	1.94(45)				7.29(169)
	178	0.95(22)	1.85(43)	1.29(30)				4.10(95)
	184	0.04(1)	0.52(12)	0.39(9)				0.95(22)
95	160		1.94(45)	1.72(40)	1.08(25)			4.74(110)
	166	0.17(4)	1.25(29)	5.35(124)	2.11(49)	0.17(4)		9.06(210)
	172	0.09(2)	1.47(34)	7.50(174)	1.77(41)			10.82(251)
	178	0.13(3)	1.29(30)	3.58(83)	1.08(25)	0.04(1)		6.12(142)
	184	0.09(2)	0.43(10)	1.25(29)				1.77(41)
100	160		0.26(6)	0.26(6)	0.13(3)	0.09(2)		0.73(17)
	166		0.73(17)	1.60(37)	1.29(30)	1.34(31)	0.04(1)	5.00(116)
	172	0.09(2)	0.82(19)	2.24(52)	5.09(118)	0.86(20)	0.26(6)	9.36(217)
	178		1.21(28)	1.90(44)	2.16(50)	0.22(5)		5.48(127)
	184	0.04(1)	0.22(5)	1.29(30)	0.73(17)	0.13(3)		2.41(56)
105	160							0.00(0)
	166		0.47(11)	0.22(5)		0.13(3)	0.09(2)	0.91(21)
	172		0.47(11)	0.91(21)	0.52(12)	0.56(13)	0.26(6)	2.72(63)
	178		0.09(2)	1.21(28)	0.86(20)	1.03(24)	0.34(8)	3.54(82)
	184		0.39(9)	0.56(13)	0.30(7)	0.17(4)		1.42(33)
total		9.01(209)	29.15(676)	38.94(903)	17.16(398)	4.74(110)	0.99(23)	100(2319)

치수가 크다.

업체의 각 부위별 범위를 보면 가슴둘레는 94~106cm, 허리둘레는 82~94cm, 키는 165~180cm이다. 〈표 10〉~〈표 15〉에서 2%이상의 커버율을 보인 구간을 치수로 설정했을 때 각 부위별 범위는 가슴둘레는 82~102cm, 허리둘레는 66~83cm, 키는 157~183cm로서 기성복 업체의 현행 치수 범위와 비교해 보면 업계의 치수범위가 훨씬 좁고 치수는 크다.

치수 범위의 경우 업체는 3~4개의 치수를 사용하는 반면 본 연구는 커버율 2% 이상의 구간을 모두 치수 설정 가능 구간으로 선택해 체형별로 12~22개의 치수가 선정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치수 범위를 업계의 치수 범위와 비교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 특히 허리둘레의 경우 업계의 치수 구간은 82~94cm인 반면, 본 연구의 구간은 66~83cm로 훨씬 작다.

연구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개 업체의

<표 14> XI형의 size 분포 (%, 괄호안은 빈도)

윗가슴둘레	키	허리둘레					total
		68	74	80	86	92	
86	157	4.37(34)	1.29(10)				5.66(44)
	163	11.05(86)	2.06(16)				13.62(106)
	169	6.68(52)	1.29(10)				7.97(62)
	175	1.93(15)	1.16(9)				3.08(24)
	181						0.00(0)
	187						0.00(0)
93	157		3.73(29)				3.73(29)
	163	0.51(4)	7.58(59)	1.80(14)			9.90(77)
	169	4.50(35)	8.74(68)	0.51(4)			13.75(107)
	175	3.92(32)	11.57(90)	0.13(1)			14.65(114)
	181	1.03(8)	4.24(33)	0.90(7)			6.17(48)
	187	0.13(1)	1.16(9)	0.13(1)			1.41(11)
100	157						0.00(0)
	163		2.31(18)				2.31(18)
	169		1.16(9)	3.21(25)	0.77(6)		5.14(40)
	175			2.83(22)			2.83(22)
	181		0.51(4)	1.03(8)			1.54(12)
	187						0.00(0)
107	157						0.00(0)
	163						0.00(0)
	169		0.26(2)	0.90(7)	1.03(8)		2.19(17)
	175		0.13(1)	1.54(12)		1.41(11)	3.08(24)
	181			0.13(1)		0.13(1)	0.26(2)
	187						0.00(0)
114	157						0.00(0)
	163						0.00(0)
	169				0.13(1)	0.39(3)	0.51(4)
	175			0.39(3)		0.90(7)	1.29(10)
	181					0.90(7)	0.90(7)
	187						0.00(0)
total		34.19(266)	46.66(363)	13.50(105)	1.93(15)	3.73(29)	100(778)

<표 15> XI형의 size 분포 (%, 괄호안은 빈도)

윗가슴둘레	키	허리둘레					total
		63	69	75	81	87	
82	158	0.82(8)	0.62(6)				1.44(14)
	163	1.44(14)	2.27(22)	0.82(8)			4.54(44)
	168	0.52(5)	2.16(21)				2.68(26)
	173	0.21(2)	1.13(11)				1.34(13)
	178		0.62(6)				0.62(6)
	183						0.00(0)
88	158		1.55(15)				1.55(15)
	163	0.10(1)	2.16(21)	2.06(20)			4.33(42)
	168	0.82(8)	5.46(53)	1.65(16)			7.94(77)
	173	1.75(17)	2.47(24)	2.16(21)	0.10(1)		6.49(63)
	178	0.10(1)	2.68(26)	0.52(5)			3.30(32)
	183		0.21(2)	0.93(9)	2.91(26)		1.13(11)
94	158						0.00(0)
	163		0.82(8)	1.96(19)	0.93(9)		3.71(36)
	168		1.24(12)	7.42(72)	2.06(20)		10.72(104)
	173	0.62(6)	1.96(19)	7.53(73)	3.09(30)	0.10(1)	13.30(129)
	178	0.62(6)	0.31(3)	3.71(36)	1.65(16)		6.29(61)
	183		0.41(4)	1.13(11)			1.55(15)
100	158						0.00(0)
	163			2.16(21)			2.16(21)
	168			0.10(1)	1.75(17)	0.31(3)	2.16(21)
	173			1.75(17)	2.58(25)	1.13(11)	5.46(53)
	178		0.52(5)	2.58(25)	4.02(39)	1.03(10)	8.14(79)
	183		0.72(7)	0.62(6)	3.51(34)	0.62(6)	5.46(53)
106	158						0.00(0)
	163						0.00(0)
	168			0.21(2)	0.93(9)		1.13(11)
	173				1.65(16)		1.65(16)
	178				0.82(8)	1.55(15)	2.37(23)
	183					0.5(5)	0.52(5)
total		7.01(68)	27.32(265)	37.32(362)	23.09(224)	5.26(51)	100(970)

패터너와 전화 면접한 결과 제품의 라벨에 붙은 호칭은 "신체치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치수는 실제로는 신체치수도 의류치수도 아닌 신체치수에 여유분을 더한 가공의 치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패터너가 가진 신체치수 개념은 최소의 내의를 착장한 상태에서의 신체치수 개념이 아니라 각 복종별로 적당한 여유분이 추가된, 신체치수와 의복치수, 치수 사이의 제 삼의 수치를 의미하였다. 이는

〈표 16〉 브랜드별 치수체계

브랜드명	호 칭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브랜드명	호 칭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로가디스 (제일모직)	577	97	85	170	트루젠 (나산)	577	97	85	170
	688	100	88	175		688	100	88	175
	7AA	106	94	180		69A	106	94	175
마에스트로 (LG패션)	38R	94	82	170	소르젠떼	577	97	85	170
	40R	100	88	175		677	97	85	175
	42R	106	91	175		688	100	88	175
트래드클럽 (서울트래드)	466	94	82	165	닥스	577	97	85	170
	588	100	88	170		588	100	88	170
	699	104	92	175		699	103	91	175
바쏘 (세계물산)	577	97	85	170	칼립소	488	97	85	165
	588	100	88	170		577	97	82	170
	69A	106	94	175		688	100	88	175

다양한 고객의 신체치수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치수가 적은 쪽보다는 큰 쪽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빚어진 관행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복 상의는 여성복이나 남성복 하의와는 달리 신체에 꼭 맞게 입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 치수에 여유분을 더해 패턴을 설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관행은 동일업체라도 상의의 신체치수 허리둘레 범위는 85~94cm이나, 하의의 신체치수 허리둘레는 74~94cm로 표기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업체의 신체치수가 실제 신체치수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대를 연령별로 세 구간으로 나누어 허리둘레의 평균을 20~21세는 73.9cm, 22~24세는 75.4cm, 24~29세는 77.4cm이고, 평균을 중심으로 전후 25% 구간 범위가 20~21세는 69.7~77.5cm, 22~24세는 71.2~79.3cm, 25~29세는 73.0~82.2cm로 업체의 사이즈 구간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소비자의 신체 치수와 라벨의 호칭에 적힌 신체치수는 개념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체형별 커버율이 2% 이상인 치수 12~22개를 선택하였으나 현 업체에서는 3~4개의 치수체계를 선택하고 있다. 커버율이 2% 이상

〈표 17〉 각 체형별 치수체계

체 형	치수체계(윗가슴둘레-허리둘레-키)	체 형	치수체계(윗가슴둘레-허리둘레-키)
YI형	88-69-168 88-69-173 93-74-173 98-79-178	HI형	88-71-167 95-77-172 102-83-177
HS형	91-71-172 94-76-172 97-81-178	H)형	90-72-166 95-77-172 100-82-178
XI형	86-68-169 93-74-169 100-80-175	X)형	88-69-168 94-75-173 100-81-178

인 구간을 모두 치수로 정한 것은 치수 범위를 넓게 주어 사용자는 체형별 원하는 치수의 커버율을 살펴 이 중 업체의 특징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치수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치수 조합은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의 편의를 도모하기보다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현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만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의류치수체계가 현 업체에서는 외면당하는 것이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을 타겟으로 했을 때 적절한 치수를 업체에서 사용하는 치수 개수와 비슷한 3~4개를 선정하였다. 선정의 기준은 우선 빈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였고, 선택된 치수간의 조합을 살펴 이 치수 체계들을 선택하였을 때 다른 치수를 최대한 포괄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두어 커버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치수체계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정면 유형과 측면 유형이 조합된 전신유형의 분류와 전신유형 중 우리 나라 20대 남성의 대표 유형을 찾아 유형별 치수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류된 정·측면 각각 3개의 유형에 대해 분할표 분석을 실시하여 그 중 출현율이 높은 6개 유형을 대표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HI형, H)형, X)형, XI형, YI형, HS형으로 20대 남성의 84.64%가 이 체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표 유형의 의류치수체계를 설정하였다. 치수편차는 기본 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치수분포를 나타내었다. 이 중 빈도가 높고, 치수 간의 조합을 살펴 커버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치수체계를 선택하였다.

YI형은 88-69-168, 88-69-173, 93-74-173, 98-79-178이다.

HI형은 88-71-167, 95-77-172, 102-83-177이다.

HS형은 91-71-172, 94-76-172, 97-81-178이다.

H)형은 90-72-166, 95-77-172, 100-82-178이다.

XI형은 86-68-169, 93-74-169, 100-80-175이다.

X)형은 88-69-168, 94-75-173, 100-81-178이다.

기성복 제조 업체는 자상표의 표적고객의 체형에 따라 치수체계를 선택하면 의복의 피트성과 커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한정되었고, 피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구자(1991). 남성복의 치수규격을 위한 체형 분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1998). 신사복 상의제작을 위한 사이즈스팩의 분류- 28세에서 35세 우리나라 남성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 1090-1098.

김인숙, 석혜정(2001). 20대 남성 체형 연구(제1보)-정면 체형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5(2), 251-263.

남윤자(1991). 여성 상반신의 측면 형태에 따른 체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은주(1993). 청년기 남성의 상반신 체형 분석 및 원형 설계를 위한 피복인간공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정순 외 3인(1996). 성인 남자의 의복 설계를 위한 신체계측 분석 연구. 복식문화연구, 4(2), 265-275.

석혜정, 김인숙(2002). 20대 남성 체형 연구(제2보)-측면 체형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6(2), 270-279.

섬유저널(1999. 11). "2000년 신사복 시장 뜨겁다".

유신정(1991). 의복구성을 위한 20대 남성의 체형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명(1993). 상의 구성을 위한 노년기 남성의 체형 분석. 복식문화연구, 1(2), 159-179.

_____(1994). 바지제작을 위한 노년기 남성의 체형 연구. 한양여자대학논집, 17, 187-216.

이순원(1971). 한국인 체형에 관한 피복구성학적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혜영(1991). 기성복 제작을 위한 표준 치수 체계의 설정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터패션플래닝, 한국섬유산업연합회(1995). 국민 표준 체위 조사 설명회.
장혜경(1998). 여고생의 체형 분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유경(1997). 여성 체형의 형태적 분류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 산업규격(1999). KS K 0050.
川上梅, 長谷部(1980). 多變量分析法による成人男子の體型に關する(第1報)-主成分値分析の 年齢的變化. **日本家庭學會誌**. 31(7), 33-39.
川上梅(1982). 多變量解析法による成人男子の體型に關する研究(第2報)-示數値の主成分分 析による形態の年齢的變化. **日本家庭學雜誌**. 33(4), 191-198.
百田裕子, 間壁治子(1998) 成人男子の上半身の體型特性(第2報). **纖維消費者學會誌**. 39(12), 517-526.